

# 경북도민, 삶 만족도 전년比↑... 사교육비는 늘어

2023 경북도 사회지표 공표 삶 만족도 2022년 5.91점서 지난해 6.09점으로 상승해 “도민 중심의 정책에 활용”

지난해 경북도민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전년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2023년 경상북도 사회지표’를 지난달 31일 공표했다.

‘경상북도 사회지표’는 사회조사로 도민의 주관적 인식과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각종 행정자료를 수집 및 재가공해 작성한 통계다.

경북도는 지난해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도내 1만9692 표본가구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11개 부문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도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2022년 5.91점에서 지난해는 6.09점으로 높아졌다.

경북도민들의 도정 정책에 대한 만족도 비율은 2022년 15.9%에서 2023년 17.4%로 높아졌으며, 행정서비스 만족도는

2022년 17.6%에서 지난해는 19.3%로 증가했다.

일자리에 대한 인식은 ‘충분하지 않다’ 46.6%, ‘충분하다’ 18.8%였으나, 일자리 상황에 대한 전망은 ‘나아질 것’ 26.8%, ‘나빠질 것’ 18.3%로 긍정 전망이 더 많았다.

부모 부양 책임자는 ‘부모님 스스로’가 65.4%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년 대비 4.3%p 증가한 것이다.

고등학생의 월평균 공교육비는 9.2만원, 사교육비는 52.5만원으로, 전년 대비 공교육비는 1.7만원 줄었으나 사교육비는 6.9만원 늘었다.

사회안전에 대해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7.5%로 전년 대비 0.8% 줄었다.

문화예술체육행사 관람률은 40.3%로 전년보다 10.1%p 늘었다.

이정우 경북도 메타AI과학국장은 “경상북도 사회지표는 도민 중심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사회지표의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누리집 및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용 기자



## “경주 APEC정상회의 성공 개최 만전... 민관 협력해야”

통상본부장, ABAC기업인자문위 만나 준비현황 공유... 개최도시 경주 방문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내년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개최를 앞두고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인교 본부장은 전일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신규 위원 3인과 면담을 진행했다.

ABAC 기업인자문위원회는 조현상 HS 효성 부회장과 이규호 코오롱 전략부문 대표 이사 부회장, 이주완 메가존클라우드 대

표이사로 지난 8월 임명됐다.

정 본부장은 이들과 내년 APEC 의장국 수임 의의와 정상회의의 계기 경제인 행사 계획과 준비 현황, ABAC 위원활동 계획 등을 논의했다.

ABAC위원들은 내년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과 ‘APEC 정상과 ABAC위원 간 대화’ 등 경제인 행사에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글로벌 기업인을 초청할 계획이다. 국내 투자유치 확대 등 실질적인 사업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다짐했다.

정 본부장은 1일 APEC 정상회의의 개최도시인 경주를 방문한다. 교통과 숙박 행사

장 등 인프라 현황을 점검하며 성공적인 행사 개최 준비에 나선다.

행사가 1년 밖에 남지 않은 만큼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시정 관계자를 격려하며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지 여부를 점검하고, 철저히 행사를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 우리나라 APEC 수임국 활동에 대한 회원국의 지지를 적극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오는 14일 페루에서 개최되는 APEC외교통상 각료 회의에서 APEC통상 아젠다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윤용찬 기자

## 정치권 ‘대통령·명태균 녹취 파장...’ 홍준표 “尹 무너지면 보수 진영 붕괴”

다른 글 통해 “대항하는 여당 보이지 않고 내부 권력투쟁...”

홍준표 대구시장이 31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 “윤통이 무너지면 우리(보수) 진영이 붕괴된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판을 모르고 정치에 뛰어들다 보니 대선 후보 경선 때 윤 후보 측에는 온갖 잡동사니들이 다 붙어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명태균도 그중 하나이고 우리 당에서 민주당으로 가서 폭로에 가담하고 있는 사람도 그 부류”라며 “대화를 몰래 녹음해서 폭로하는 건 양아치나 하는 짓”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온갖 잡동사니를 데리고도 대통령이 된 것은 그만큼 윤 후보가 역량이 출중했다는 것”이라며 “윤통이 무너지면 우리 진영이 붕괴되고 대한민국은 또다시 좌파 포퓰리즘이 판치는 나라가 된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앞서 다른 글을 통해 “탄핵 전야 데자뷔를 보는 것 같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구속되기 싫어서 제멋대로 지껄이는 선거 브로커 하나가 나라를 휘젓고 야당은 이에 맞춰 대통령 공격에만 집착



한다”며 “이에 대항하는 여당은 보이지 않고 내부 권력투쟁에만 골몰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 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이 주고받은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음성 파일엔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 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언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 통화가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한 달 전인 5월9일 이뤄졌으며, 다음 날인 10일 김 전 의원이 실제 공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성용 기자

표이사로 지난 8월 임명됐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내년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개최를 앞두고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인교 본부장은 전일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신규 위원 3인과 면담을 진행했다.

ABAC 기업인자문위원회는 조현상 HS 효성 부회장과 이규호 코오롱 전략부문 대표 이사 부회장, 이주완 메가존클라우드 대

## “이젠 우리가 은혜 갚을때... ODA 증액해야”

존경받는나라운동대구본부 시민·청소년, 대구 도심 행진

공적개발원조 증액을 촉구하는 대구 시민·청소년 행진이 2일 대구시 중구 반월당 옛 중앙파출소 분수대 광장에서 열렸다.

ODA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제공하는 원조다.

존경받는나라운동대구본부와 대구시 교육청이 주최한 이날 행사는 줌바댄스,

마칭밴드, 난타공연 등 식전행사가 진행됐다. 이어 존경받는나라운동 대구본부 창립식, ODA 증액 촉구를 위한 대구시민대회가 이어졌다.

행사 후 참가자들은 반월당~중앙로 구간 1km를 행진하며 정부에 ODA 증액을 촉구했다.

이동수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제1회 행사를 통해 전년 대비 40%가 증액되면서 총 6조원의 기금이 형성됐다”며 “하지만 이는 전체 예산의 0.26%로 유엔(UN)이 정한 권장치 0.7%에는 미치지 못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집행위원장은 “60여년전 우리나라가 깃털미에서 일어나 경제성장의 꽃을 피운 것은 ODA의 공이 크다”며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갚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성용 기자



### 단체장 일정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은 28일 오후 남구가족센터에서 열리는 남구시니어클럽 식도락 연구소 개소식에 참석한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4일 오전 군수실에서 열리는 이웃돕기 성품 기탁식에 참여해 감사인사를 전했다.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

月刊 정치와시림  
곧 독자 걸음으로 다가갑니다!

# 종합

대구광역시보

2024년 11월 4일 월요일 2

## 대구 특화 복지시설 효경기억학교, 제주 여행

대구시 특화 복지시설 효경기억학교는 지난달 16~18일까지 2박 3일 동안 카카오키친이 온라인 모금 및 보명대이저, ㈜대신강업의 후원을 받아 경주채마어르신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 평소

여행의 기회가 적은 어르신들은 며칠 전부터 동년배 친구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여행 갈 생각에 설레어 하였고,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제주도 특유의 상큼한 공기를 마시며 따뜻한 햇살과 푸른 바다가 반

기는 특별한 여행을 시작했다. 이번 여행은 수목원 테마파크, 민속자연사박물관, 용두암 및 무지개해안도로, 이트사커스, 허브족욕 등 어르신들이 자연과 문화를 경험하고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을 통해 일상에 서 느끼보지 못한 즐거움과 생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진행됐다. 조여은 기자



# 지역 대학생들 도심서 '소통의場'

동성로서 첫 '대구경북 대학페스타' 계명대와 계명문화대 태권도 시범 28아트스퀘어 앞마당 대학대항전 달빛동맹 청년 이노베이터 챌린지



대구시는 대구경북 17개 대학이 참여하는 '2024 대구경북 대학페스타'를 1·2일까지 2일간 동성로 일대에서 개최했다.

지역 최초로 개최하는 대학페스타는 대구와 경산권 17개 대학(대구 11, 경산 6)이 참여한다. 행사 주요 내용은 개막식, 대학 홍보 프로그램,

대학대항전, 시상 및 폐막식 등이며, 대학생들이 캠퍼스를 벗어나 대구의 중심인 동성로에서 축제를 개최하여 도심에 젊음의 활기를 채우고 지역과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막식은 1일 오후 5시 동성로 28아트스퀘어에서 개최되며, 개회 선언과 함께 행사를 기념하는 퍼포먼스, 초청가수 GOD 김태우의 축하 공연이 이어졌다.

각 대학 홍보를 위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는 계명대와 계명문화대의 태권도 시범단, 대구보건대의 학생 홍보대사, 대구과학대의 뮤지컬과 대구가톨릭대의 실용음악 공연, 경북대의 로봇 시연 등 각 대학의 특성을 담은 무대를 선보였다.

동성로 28아트스퀘어 앞마당에서는 각 대학의 선수단이 참여하는 대학대항전이 열렸다.

각 대학 대표선수단은 대학골든벨, 단체줄넘기, 팔씨름, e-스포츠 등의 경기에 참여하여 축제를 즐기고, 학생들의 끼와 열정을 담은 '유니

프갓 밸런스' 등 공연 무대도 마련했다.

대학전의 종목별 상위 우승자와 종합점수 상위 대학에게는 각각 개인별 시상과 우승기를 수여했다.

페스타 기간 중 동성로 일대에는 17개 대학의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꾸민 대학 홍보부스를 상시 운영해, 페스타를 찾은 시민들에게 대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부는 체험 활동도 선보였다.

연계 행사로 대구와 광주 대학생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역산업창업 아이디어 발굴 경진대회인 '달빛동맹 청년 이노베이터 챌린지'가 개최되며, 전남대, 조선대 등 광주의 3개 대학 학생 등 40여 명이 대구를 방문해 챌린지와 페스타에 참여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올해 처음으로 대구경북의 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대학페스타를 대구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대학페스타가 지역과 대학이 상생 발전하고, 대학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태용 기자



##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예타 조사 대상 선정

시 민선 8기 공약사업 2032년 개장 목표 추진

기재부의 지난달 31일 2024년 제7차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에서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대구시는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대구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하변면 이전을 추진해 왔으며, 사업

계획을 충실하게 준비해 지난 9월 예비타당성 검토 요구서를 농식품부에 제출했고, 최종적으로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시설현대화 사업비는 총 4460억 원으로 국비 1004억 원, 지방비 345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2032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전하는 도매시장은 최적 동선을 위한 일방향 프로세스 기능 배치, 공동선별장 및 청과동 자동창고 설치, 통합 경매장 설치, 공동배송장 및 온라인물류센터 설치 등으로 출하자와 소비자 등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통합물류기능 확충과 스마트 물류체계 도입으로 첨단 도매시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북구 매천동에 위치한 대구농수산물도매시

장은 전국 3위 거래규모의 거점 공영도매시장으로, 한강 이남 농수산물 유통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으나, 개장 38년이 경과해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상존, 물류 동선의 비효율성, 실제 물량 대비 200%에 육박하는 초과거래로 인한 시설 공간 부족, 쓰레기 약취 문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도매시장 이전을 통한 근본적 문제해결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정섭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이번 시설현대화사업 예타 대상 선정으로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며, "단순히 물리적 개선을 넘어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 '제13회 달성군 전국 사진공모전' 수상작 발표

일반 171명 참가 359점 출품 대상 '두 부부의 힐링여행' 선정

(제)달성문화재단은 '달성내컷:내가 찍은 나만의 달성'을 주제로 지난 9월 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진행된 '제13회 달성군 전국 사진공모전'의 수상작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적으로 쏟아지는 관심 속에 자칫 미충족 제품 제외 일반 부문에 171명이 참가하여 359점을, 스마트폰 부문에 211명이 참가하여 414점을 출품했다. 출품된 작품은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쳤으며, 심사를 통해 공모전의 취지와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한 총 35점의 작품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일반사진 부문(상금 300만 원)의 대상으로 다 사슴 죽곡댁소리길에서 두 부부가 산책하는 모습을 촬영한 출품작 '두 부부의 힐링여행'(출품 하성민)이 선정됐다. 이 작품은 죽곡댁소리길 속 우거진 대나무들 사이로 여유롭게 산책하는 부부의 일상을 담은 작품으로 참신한 구도

로 배경이 된 죽곡댁소리길을 재조명하였다.는 호평을 받았다.

스마트폰사진 부문의 대상(상금 100만 원)에는 '사문진의 노래'(출품 이재용)가 선정됐다. 작품은 사문진 나무터의 피아노 모양 설치물을 배경으로 실제 피아노를 연주하는 듯 흥미를 내는 손의 모습을 담아 표현력과 창의성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공모전 수상작 전시는 오는 11월 중 달성군청 참관갤러리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많은 지역민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전시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수상작들은 향후 달성군 관광 콘텐츠 제작 등 달성군 관광 홍보에도 적극 활용될 계획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회차를 거듭할수록 공모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는 만큼 올해도 우수한 작품들이 많이 접수됐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선정된 작품들을 활용해 달성군 지역의 맛과 아름다움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조여은 기자

## 국악인 인큐베이팅 4팀... 최종 경연

대구문화예술회관 국악인 인큐베이팅 사업 'JUMP UP' 선정 4팀의 최종 경연이 11월 26~29

일까지 4일 동안 매일 저녁 7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슬홀에서 펼쳐진다. 국악인 인큐베이팅 사업 'JUMP UP'은 우리 전통 음악 예술인을 발굴해 전통예술을 보존하고, 예술 활동 기

반과 콘텐츠 개발 여건을 마련하고자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추진 중인 프로젝트이다.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참여 단체를 모집, 5:1의 경쟁률 속에서 1차 서류 및 영상평가, 2차 실연 및 인터뷰 평가를 통해 '우리음악 집단 소속(대표 김운우)', '조선버전(대표 김용호)', '주식회사 퓨전국악 이어람(대표 이지영)', '트리거(대표 이수형)'까지 4개 팀이 선정됐다. 선정된 4개 팀은 국악 분야 최고 전문가의 1:1 멘토링과 대구문화예술회관의 창작-프로덕션 인큐베이팅을 통해 공연을 구성, 11월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슬홀에서 경연 형식의 특별 공연을 펼친다. 황태용 기자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보** '독자의 기쁨' 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 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aum.net

발행인 김영숙 | 편집인 김성용 | 부사장 조여은 | 편집국장 김현석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체부	053-253-0065
부사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사회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인원실	053-26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 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구석구석 95% 따뜻해졌습니다!

사랑의열매는 전국 약 3만 개 협력기관들과 함께 기부금의 95%를 우리 이웃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세상 구석구석 전해진 따뜻한 온기, 올해 사랑의열매가 맺은 또 하나의 사랑의열매입니다.

2023년 모금금액 **8,305억**

2023년 지원금액 **7,446억**

지원 대상

1,719

노년

1,010

장애

486

유아/어린이

379

노년

1,787

청소년

1,792

외국/해외

273

사업 분야

3,882

지역/기관

939

주택/주택

615

기타/기타

450

기타/기타

382

기타/기타

755

기타/기타

240

기타/기타

183

해당 지원내역은 2023년 사랑의열매 나눔기부금입니다. 지난해 7,446억 원으로 전국 3만 개 기관과 함께 43만 명의 이웃을 지원했습니다.

‘이인성미술상’ 수상자 허윤희 작가 선정

대구미술관은 ‘제25회 이인성미술상’ 수상자로 선정된 서양화가 허윤희(許潤姬) 작家的 시상식을 1일, 대구미술관 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인성미술상은 한국 근대미술사

에 큰 업적을 남긴 서양화가 이인성(대구, 1912-1950)의 작품세계와 높은 예술정신을 기리고 한국미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대구시가 제정한 상이다. 수상자에게는 이인성미술상 상금과

상패, 내년도 대구미술관 개인전 개최 등 다양한 지원이 있다. 대구미술관은 현대미술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추천위원 회의를 거쳐 최종 5명의 수상 후보자를 선정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허윤희(부신출생, 1968-) 작가를 최종 수상자로 선정했다. 황태용 기자



영남권 시·도 “미래 제조업 생태계 협력”

제12회 영남권 경제관계관 포럼 2024년 공동연구 과제 결과 발표 수소차·전기차·자율주행 등 분야 5개 시도 제조업 상생발전 논의



경상북도는 1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영남권 5개 시도 경제 담당 공무원과 연구기관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영남권 경제관계관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경북, 부산, 대구, 울산, 경남 등 5개 시도가 공동 주최하고, 경북도와 경북연구원 이 공동 주관했다.

영남권 경제관계관 포럼은 2011년 영남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부·울·경 경제관계관 회의를 5개 시도(대구, 경북 포함)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후, 2012년 경남을 시작으로 매년 5개 시도가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부산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올해 열두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포럼은 영남권 경제 협안에 대한 발전 방안 논의와 5개 시도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으며, 2024년 공동연구 과제 결과 발표, 전문가 특강, 2025년 공동 과제 주제 발표, 공동 발전 방안 협약서 체결 순으로 진행됐다.

최근 글로벌 경제는 디지털 전환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두 가지 큰 흐름 속에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영남권은 신기술 도입과 혁신을 통한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여 초광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기술 융합의 활용이 중요한 시대에 접어들면서, 영남권의 공동연구와 협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올해 주제는 ‘영남권 미래모빌리티 산업 육성 방안’으로 미래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과감한 기술개발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이날 5개 시도는 지속 성장 가능한 모델 구축을 통해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수소차, 전기차, 자율주행, UAM 등)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

특별강연에서는 한상철 한국에너지공대 연구처장이 AI(인공지능), 반도체, 모빌리티 등 첨단기술들이 혁신경제로의 전환 과정에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맞춰 제조업 혁신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주제로 경쟁력 있는 제조업의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전통산업으로 인식되어 온 제조업의 새로운 돌파구로 미래 제조업의 핵심 기술인 스마트 제조가 최근 주목받고 있는데, 5개 시도는 제조업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5년도 공동연구과제로 ‘디지털 전환(DX) 시대, 영남권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선정했다.

최영수 경상북도 경제통상국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 제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영남권이 산업변화 위기에 적극 협력하고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동반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제조업이 불투명, AI(인공지능), 로봇 등 대표적 기술을 접목한 혁신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도록 5개 시도가 적극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체험을 통해 수학의 원리 전달” 대구시교육청이 주최하고 대구중등수학교육연구회가 운영하는 ‘제16회 대구수학페스티벌’이 11월 2일 대구과학고에서 Math-full Festival(풀만 수학)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35개 학교(기관)에서 운영하는 ‘수학교과 체험부스’에서는 관람객이 체험을 통해 수학 원리를 탐구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직접 설명하며 안내하고, 부스별 체험 활동과 관련된 이론 등을 담은 책자도 관람객에게 제공해 관람객의 이해를 도왔다. 황태용 기자/사진제공=대구시교육청

경주공업高, 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

2026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 경북 추가 지정으로 총 9개교

경북도는 경주공업고등학교가 교육부의 첨단산업(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로 신규 지정됐다.

마이스터고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로 현재까지 57개교가 지정되었으며, 경북도는 이중 가장 많은 8개교로, 이번 신규 지정으로 9개교로 늘어났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경주공고는 기존에 운영되던 스마트융합기계과, 전기에너지과, 스마트전자과를 반도체 제조 및 장비 분야 유지보수 인력양성을 위한 반도체 융합과로 개편하여 2026학년도부터 해마다 전국에서 신입생 60여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마이스터고 전환을 위해 경북도와 교육청, 경주시가 함께 국비를 포함 총 2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함에 따라, 지역 첨단산업 인재 양성의 산실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지난해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구미와 포항이 지정되었으며, 특히,

구미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글로벌 초격차 반도체 기업육성을 위한 경북 반도체 전문인력 10년간 2만 명 양성으로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완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해 구미반도체 특화단지가 지정되어 반도체 관련 인재가 많이 필요할 시기에 경주공고가 마이스터고에 지정되어 반갑고 다행”이라며, “경북에서 태어나 지역에서 공부하고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지역의 좋은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고졸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윤용찬 기자

도교육청, 내년 학생 배치기준 확정 발표

지역 내에서도 학급당 정원 달리 적용해 불균형 해소 계획

경북교육청이 1일, 내년도 유치초중고등학교 학생 배치 기준을 확정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유치원 학급편성 기준 인원은 3세반 16~18명, 4세 반 20~22명, 5세반 24~26명, 혼합반은 20~24명이며, 지역별 유치원의 여건을 고려해 학급을 편성한다.

초등학교는 동 지역 26명, 읍면 지역 22명으로 전년 대비 2명을 줄였다.

특히 기존에는 학급편성 후 학년별 전체 남은 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에 학급증설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학년별 전체 학급수×2)+1명 이상인 경우에 학급증설이 가능해진다.

또 읍면 지역 학생 수 1000명 이상인 초·중·고등학교(포항)와 포항원동초등학교, 구미문성초등학교, 구미인덕초등학교, 구미신당초등학교, 경산암양초등학교, 대교초등학교(칠곡), 호명초등학교(예천) 등 8교는 교사 정원 감축을 고려해 최대학급(2024학년도 편성 학급)을 초과하지 않게 학급당 학생 수를 22~26명 범위에서 학교 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배치기준 확정 발표

중학교는 2027학년도까지 일시적인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나, 교사 정원이 감축돼 전 지역에 1학년 28명, 2~3학년 26명으로 학년별 적용한다.

또 특별한 수요가 있는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경북희망학교(구미원당초등학교, 포항항동중학교)와 이주배경학생(다문화)이 학년별 40% 이상인 학교(경주흥무초등학교, 월성초등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정하고, 공모로 다문화 특별학급(1학급)을 신설해 한국 어 교육을 지원한다.

고등학교는 최근 3년간 진학률과 타 지역 유입률을 적용해 내년도 입학 예상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학급당 정원을 적용했다.

기존에는 시군에 일률적으로 학급당 정원을 정했지만, 내년부터는 지역 내에서도 학급당 정원을 달리 적용해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같은 조치는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 대비해 교사 정원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현장의 급격한 타격을 줄이고 연차적으로 교육여건 변화에 대비한 선제 대응”이라며 “중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학생들이 안정적인 교육 여건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사이소’ 테마관, 우수 농수산물 할인 행사

정보화 마을 상품 20% 저렴 11월 판매... 조기 종료 가능

경북도는 도내 정보화마을의 우수 농수산물 판로확보와 홍보를 위해 1일부터 30일까지 경북고향장터 ‘사이소’ 테마관에서 정보화마을 우수 농수산물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정보화마을은 행정안전부에서 2001년부터 정보 소외 지역의 초고속 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 및 전자상거래를 위한 홍보콘텐츠 조성 등으로 농산어촌의 자립 기반 마련과 주민 참여 수익모델 창출을 위해 전국적으로 정보화마을(전국 200곳)을 구축해 경북에서는 현재 37

곳의 마을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우수 농수산물 할인행사에서는 사과, 홍계, 오징어, 잡곡, 대추, 꿀, 참기름, 마늘 등 도내 정보화마을의 우수한 상품을 시중보다 2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특히,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은 농수산물의 다양한 판로 확보와 정보화 마을 브랜드를 통해 정보화마을과 소비자가 직거래로 할인된 가격과 신선한 상품을 거래하는 일석이조의 혜택이 있다.

행사 참여는 사이소(https://www.cysa.co.kr)의 메인 배너 또는 테마관을 통해 할인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할인 기간은 11월 한 달로 판매 상품별 정해진 예산이 소진되면 인기 상품

은 조기에 할인이 종료될 수 있다.

경상북도에서는 정보화마을 직거래 장터 활성화뿐만 아니라 정보화 마을 활성화를 위해 마을별 지도자와 프로그램관리자 등의 역량 강화 교육 등으로 고령화되는 농산어촌의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인프라 기반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김경숙 정보통신담당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정보화마을의 자립생태계 기반을 확보하고 고령화되는 농산어촌 주민들의 농수산물 판로확보와 구매자들이 좋은 가격에 우수한 농수산물을 접할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경북뿔, 암행순찰로 초과속 102명 단속”

형사입건된 102명중 16명 규정 속도 100km/h ↑ 초과

경북경찰청은 금년 도내 암행순찰차에 의해 초과속으로 단속된 운전자가 102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초고속 운전으로 형사입건된 102명중 16명은 규정 속도를 100km/h 이상 초과하여 운행 중 적발되었다. 초과속 운전은 규정 속도보다 80km/h 이상 초과하면 초과속 운전으로 분류

되며, 형사입건되어 벌금 및 최대 징역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 제한속도보다 시속 100km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이 경우 면허는 취소된다.

경북경찰청에서는 도민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사망사고와 직결되는 초과속 운행 근절을 위해 암행순찰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초고속운행이 빈번히 일어나는 고속도로·국도를 중심으로, 초과속 운행뿐만 아니라 난폭운전, 신호위반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김성용 기자

올해 공공비축 포대벼 매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10월 31일 예천군에서 가루쌀벼를 시작으로 2024년산 공공비축 포대벼 매입 검사를 대구·경북 22개 시군 389개 검사장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지역 2024년산 공공비축 포대벼 검사량은 총 63,853톤(조곡기준)으로 일반벼 61,472톤, 가루쌀벼 1,532톤, 친환경벼 849톤이며 10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에 따른 추가 시장격리곡 18,860톤도 공공비축 포대벼 매입 검사와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송명주 기자

‘제50회 전국 양묘기술세미나’ 개최

전국 양묘 관계관 220여명 참석 양묘 정책 공유·기술 교류 가져

경북도는 지난날 31일부터 11월 1일간 경주시 더케이 호텔에서 ‘제50회 전국 양묘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산림청과 지자체, 학계, 생산자 등 전국의 양묘 관계관 22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양묘 정책 방향 공유, 기술 교류

등 양묘 산업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다.

세미나는 △종묘 및 조립 정채(산림청) △경북 산림정책(경상북도) △공골의 10억 그루 나무 심기와 우량 종묘 생산(서울대) △스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 양묘 발전 전략 등에 관한 발표와 참석자의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한 논의가 있었으며, ‘양묘기술 경진대회’도 열렸다. 2일 차에는 경북 지방 정원인 천년 숲 현장을 둘러봤다. 조여은 기자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청송 울릉



울진군 '10월 인사왕' 선발

울진군은 '10월 인사왕'으로 해양수산과 정성민 주무관, 농정과 주연우 주무관을 선발했다.

'인사왕' 선발은 먼저 인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통해 직원 간 상호 존중 및 화합에 기여하고자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본청에서 2명이 선발됐다.

이번에 선정된 정성민 주무관은 친절하고 헌신적인 태도로 신속하고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평소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동료들과 화합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해 기여하고 있다.

주연우 주무관은 평소 밝은 미소와 적극적인 태도로 먼저 인사하기 실천에 앞장서고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동료들에게 모범이 되었다.



경주 건천읍 산물벼 수매

경주시 건천읍은 2024년산 공공비축미곡 산물벼 수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신경주 DSC(벼 건조 저장 시설)를 방문하여 매일 참여 농가와 수매 업무 관계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건천읍의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은 총 15,752포/40kg로, 이 중 산물벼는 6,752포, 건조벼는 9,180포이다. 이는 전년 대비 전체 물량이 약 22% 증가한 수치이다.

건천읍은 10월 14일부터 수매를 시작했으며, 잦은 강우로 산물벼 수확이 지연되고 있지만 11월 8일까지 산물벼매입을 완료하고, 11월 20일까지는 건조벼매입을 계획하고 있다.

황혼 건천읍장은 "잦은 강우로 수매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마지막까지 농업인 안전사고 없이 벼 수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윤환 기자



# APEC 성공개최 기원... 경주시민들 '한마음'

## 제36회 경주시민체육대회 열려 범시민추진위원회 위원장 점화 총 7종목서 시민들 소통과 화합 시장 '화합 보여준 시민들 감사'

제36회 경주시민체육대회가 지난 2일 시민운동장에서 비가 오는 곳엔 날씨 속에서도 시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냈다.

당일 행사에는 주낙영 경주시장, 김석기 국회의원, 이동협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여중기 체육회장, 도·시의회 의원, 기관단체장, 시민 등 1만여 명

이 참석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며 열린 이번 대회는 우승기 반환, 성화 점화, 선수 선서, 경기 진행, 시민 대화합의 장, 폐회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대회를 밝힌 성화는 호국의 영산 토함산에서 채화해 봉송 주자들의 손을 거쳐 박몽룡 APEC 경주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 위원장이 25만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불꽃을 성화대에 점화했다.

경기는 트랙종목 3종목, 필드경기 3종목, 번외경기 1종목 등 모두 7종목이 시민들의 뜨거운 열기와 응원 속에서 펼쳐졌다.

트랙에서는 경재보다는 레크레이션 위주 종목



인 대형바통 달리기, 3인2각 보드레이스, 화합 달리기 등이 진행돼 축제 분위기를 조성했다.

필드에서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연령층이 함께 참여하는 단체줄넘기, 어르신 공굴리기, 한궁 경기 등이 펼쳐져 화합의 장을 연출했다.

경기 종료 후 진행된 시민 대화합의 장에서는 초청 가수 공연으로 대회 열기를 끌어 올렸으며, 참석자들은 잠시나마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부별 편성은 인구 규모에 따라 무열부(8), 문무부(7), 흥무부(8) 등 총 3개 부로 구분됐다.

대회 결과 강동면이 종합 우승을, 종합 2위는 천북면, 종합 3위는 현곡면이 각각 차지했다.

또 무열부는 현곡면, 문무부는 강동면, 흥무부는 흥무부가 부별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더불어 경기 진행이 특색있고 열성적인 응원을 보여준 응원상은 안강읍이, 대회 질서 확립과 주민 화합의 모습을 보여준 모범상은 황성동이 각각 수상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오늘 하루 고장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경기와 응원에 임해주신 선수단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라며 "비가 오는 날씨에도 질서를 지키며 화합의 정신을 보여준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경주의 미래가 무한히 밝다는 것을 확인한 즐거운 하루였다"고 말했다.

윤용찬 기자

## 울릉군 '현포 하수처리시설 설치 설명회'

울릉군은 지난달 31일 현포 청소년 만남의 광장에서 '현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관련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역주민들에게 사업구간, 사업 추진 배경과 계획 등 사업의 취지와 계획을 설명하고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질의 및 응답, 주민 건의사항 청취 등의 순으로 진행했으며, 주민들은 하수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울릉군에 따르면, 환경부 하수도분야 국고보조 사업으로 추진 중인 '현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북면 현포리 일원에 총사업비 약 60억원(국비 36, 도비 3, 군비 21)을 투입해 1일 11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 1개소와 하수관로 3.7km를 신설 및 개량하고 배출설비 190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5년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6년 착공 및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될 경우 악취와 해충 제거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각 가정의 정화조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하수처리로 수질개선 및 공중위생 증진에 주요한 기여를 하게 될 전망이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현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포항시, 해외 투자유치 확대·신산업 접목 강화

## 포항시 대표단 서유럽 방문 UNIDO와 협력사업 논의 등

해외 투자유치 확대와 신산업의 시정 접목 및 네트워크 확대를 목표로 서유럽을 방문 중인 포항시 대표단은 세계적인 국제기구들의 본거지인 오스트리아 비엔나와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해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을 모색했다.

비엔나와 제네바는 국제적십자위원회 및 국제노동기구(ILO), 세계보건기구(WHO) 등 다수의 주요 국제기구 본부가 있는 글로벌 협력의 중심지다.

포항시 대표단은 10월 28일 오스트리아에 위치한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본부를 방문했다.

이날 대표단은 UNIDO와의 협력사업 및 파트

너십 구축에 대해 논의하고, 포항시의 도시개발 사업 등 탄소중립을 위한 성공 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며 개발도상국으로의 기술 이전 가능성을 탐색했다.

또한 UNIDO가 주최하는 국제회의의 포항 유치 의향을 표명하며 글로벌 도시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포항시의 의지를 보였다.

이후 11월 1일 이강덕 포항시장은 유엔환경계획(UNEP) 제네바 사무국을 방문해 아사드 낙비 UNEP 제네바사무소 소장을 만나 포항의 '2050 탄소중립 환경드림시티' 비전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소개하고, UNEP의 전문성과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한 시너지 창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UNEP는 환경 분야의 선도적인 국제기구로, 전 세계적인 환경 의제를 설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생물다양



성 손실, 오염 등 지구가 직면한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93개 회원국과 협력하며 국제사회의 환경 보호 노력을 이끌고 있다.

한편 포항시 대표단은 지난달 31일 바젤라트 주 경제개발청 로베르트 쾨만 단장을 만나 유럽 최대 바이오 클러스터로 성장한 노하우를 정취하고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세계적 제약회사 노바티스 재단을 방문해 포항의 바이오·의료 허브로 나아가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 청송 출신 (주)자이텍인터네셔널 대표, 성금 기탁

### '우리동네 나눔가게' 관련 지원

청송군은 지난달 25일, 진보면 출신으로 경기도 고양시에서 (주)자이텍인터네셔널을 경영하는 권

영 대표(진보종합고등학교 33회)로부터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진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

체(위원장 윤도석)에서 발굴한 업체로, 향후 협의체 정기회의를 통해 '우리동네 나눔가게'로 선정될 예정이다.

'우리동네 나눔가게'는 진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웃사랑을 꾸준히 실천하는 가게들을 발굴해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지역 나눔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윤병문 기자

가장 한국적인 도시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기억할 경주가 됩니다.  
역대 가장 완벽한 APEC, 경상북도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경산 영천  
청도 고령  
성주 칠곡

# K-웹툰 거점... '경산웹툰창작소' 문 활짝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일환  
지상 3층 연면적 584.5㎡  
30명 규모 아카데미 운영



경산시는 11월 1일 오후 3시 '경산웹툰창작소' 개소식을 열고, 지역 웹툰 작가 양성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날 개소식에는 조현일 경산시장을 비롯해 안문길 경산시의회장, 도시의회 의원, 청년 작가와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사업 경과 보고, 경산웹툰창작소 홍보 영상 시청, 시설 투어, 현판식 순으로 진행됐다.

경산웹툰창작소는 2018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서상길 청년 문화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해 조성됐으며, 지역 기반 웹툰 작가 양성과 지역 문화예술 활동의 거점 공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장산로24길 16(삼남동)에 위치한 경산웹툰창작소는 지상 3층, 연면적 584.5㎡ 규모로, 1층에는 웹툰 전시 공간, 2층에는 웹툰 작가 작업 공간 2실과 오픈형 스튜디오, 교육실, 3층에는 특강을 위한 교육실과 사무실이 갖춰져 있다.

웹툰창작소는 월요일을 제외한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며, 현재 지역 청년 작가를 대상으로 입주 작가를 모집 중이다. 또한 11월부터 12월까지 30명 규모로 웹

툰 아카데미(초급반 2반, 고급반 1반)를 무료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조현일 경산시장 "경산웹툰창작소가 K-웹툰의 거점으로 자리 잡아 경산이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청년 웹툰 작가들이 이곳에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며 "웹툰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대한민국 대표 웹툰 도시로의 성장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청도공영사업, 수능생 응원

청도공영사업공사가 지난달 31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이서고등학교(교장 김태덕)와 청도고등학교를 찾아 수험생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전달했다.

강진호 공사 사장은 "지방기업으로서 청도의 미래주요인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수능 시험을 2주 앞두고 수험생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 부담 완화와 지난 3년간의 학업 노력을 격려하고자 선물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한 "남은 기간을 차분하게 준비해서 시험 당일에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지금까지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고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다.



## 성주 금수강산면, 기부금 교류

성주군 금수강산면과 대구시 군위군 삼국유사면이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을 상호 전달하며 훈훈한 정을 나눴다.

특히, 이 두 지자체는 2024년과 2020년도에 금수면에서 금수강산면으로, 고로면에서 삼국유사면으로 명칭변경을 한 지역으로 상호 호시에 고향 사랑기부금을 기부하고, 주민들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 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두 지자체는 명칭변경으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뿐 아니라 지리적 여건이나 환경 등도 유사한 지역으로 새로운 시작의 책임감을 함께 공감하는 시간도 되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 지역에 일정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기부를 받은 지역에서는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 영천 성내동 공공임대, 국토부 승인 완료

110세대 공급 서부동 환경 개선  
2025년 토지 보상 등 착수 예정



영천시는 지난달 31일 성내동에 조성 예정인 '경북영천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의 통합인허가(공공주택 지구지정,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신청에 대해 국토부가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성내동에 총 110세대의 통합임대형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며, 2025년 토지 보상 등 사업에 착수해 2027년 하반기에 준공될 계획이다.

'경북영천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영천시 성내동 영천여고 동편 약 8,757㎡(약 2,700평) 규모 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0년 12월 영천시와 LH 간의 실무협의 절차를 거쳐 사업

규모 등을 확정하는 시행협약을 체결했으나 진척을 보이지 않았다.

작년 10월, 영천시와 LH는 변경 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 규모 조정, 임대유형 변경 등 시행협약의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 영천시와 LH 간의 상호협력관계 및 지원체계 등을 재규정해 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해왔다.

최기영 영천시장 "경북영천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성내동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과 더불어 인구 유입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칠곡, 안전대전환 점검 '우수'

칠곡군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61일간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동시 실시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시·군 평가에서 우수기관(최우수)에 선정되었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재난이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발굴·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관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내실있는 점검과 자율안전점검표를 활용한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기관장 관심도, 민간전문가 참여도 등에서 타 시군보다 탁월히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 청도군 기초 생활거점 조성사업 계획 승인

각남면·운문면·매전면 선정  
배후마을 커뮤니티지원 운영

청도군은 2022년 6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각남면·운문면·매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승인되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개년 동안 각 면당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역역량강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2단계는 기초성원 거점시설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배후마을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거점지의 핵심기능들이 배후마을로 연결되어

문화복지 서비스각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각남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의 지역역량강화 주요사업으로는 거점지인 각남복지문화센터에서 각남면민커뮤니티지원단(호빨래방 운영단), 배후마을에서 배후마을 커뮤니티지원단(호빨래방)을 운영하고 있다.

운문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의 지역역량강화 주요사업으로는 거점지에서 체육활동·풍물동아리·라인댄스·스포츠댄스, 배후마을에서 찾아가는 목욕탕 운영, 찾아가는 운문 요리교실, 건강문화활력 운영 등이 있다. 조여은 기자

## 고령군, 국제 농기계자재 박람회 참관 교육

국내·외 25개국 429개 기업 참여  
AI 기반 데이터 분석 시스템 눈길

고령군은 10월 31일 각 읍면 농촌지도자회 및 농업인들과 함께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에 참관하여 현장실무교육을 실시했다.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는 국내·외 25개국 429개(해외 94개) 농기계자재 기업들이 참여해 1902개 부스를 운영하고 첨단 농기계 등을 선보인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을 실현할 혁신적인 신기술을 탑재한 농기계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무인 이동체와 스마트 모빌리티, AI 기반 데이터 분석 시스템, 농업용 로봇 등 농업

의 미래 성장을 이끌 기술과 제품들을 중점적으로 전시해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참석한 농업인들은 다양한 첨단 농기계와 스마트 농업 기술을 접하며 미래 농업의 비전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자율주행 트랙터와 드론 방제 기술 등 스마트 농업 장비를 통해 농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정보를 접할 수 있었다.

고령군은 "이번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 현장실무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이 최신 농업 기술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노동력 절감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미래 농업 기술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배영백 기자

**살기 좋은 도시**  
**희망이 커가는 도시**  
**잘사는 군민 새로운 칠곡**

국립평화의도시 칠곡

가산산성, 다부동전적기념관, 풀벌리타테마공원, 칠곡보물놀이장, 평화분수, 칠곡보사계절별매장, 호국평화기념관, 오토캠핑장

칠곡군 CHILGOK GUN

구미 김천 문경 상주의성

구미, 전기차 '전주기' 지원 실증센터 운영

'BaaS 시험 실증 센터' 기공식 총 27대 시험·평가 장비 추진 재사용 배터리 구축 최종 목표

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혁신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5년간 배터리 활용성 증대를 위한 BaaS 실증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사용하기 위해 안전성 및 신뢰성 검사기술이 확보된 전 주기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산단 기업에게 재생에너지 활용 효율을 높여줄 제사용 배터리 구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미시는 이차전지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기업들이 소재하고 있어 관련 산업의 생산 기반이 탄탄히 구축되어 있으며, 지난해 소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차전지 육성 거점센터 구축 지원사업사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송명주 기자



김천 자산동, 하천정화

김천시 자산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난 31일 맑고 깨끗한 하천변 환경 조성을 위해 직지사천변 '쓰담데이' 활동을 했다.

이날 자산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자산동 청년협의회와 변영회 회원들은 직지사천 주변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버려진 불법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쾌적하고 아름다운 하천변 환경 조성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청년회장 및 변영회장은 "주민들의 휴식 공간인 직지사천 주변이 깨끗해진 모습을 보니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시기 자산동장은 "바쁘신 일에도 이번 행사에 참여해 주신 청년협의회 및 변영회 단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지역의 환경정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상주 외서면, 식품 나눔

상주시 외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난날 31일 외서면 저소득층 16가구를 대상으로 2024년 10월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날 '찾아가는 푸드마켓'을 실시했다.

'찾아가는 푸드마켓' 사업은 거동이 불편하여 균형 잡힌 식사 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영양죽, 두부, 우유, 바나나 등 다양한 단백질 중심의 식품 및 과일 등을 전달하여 대상자 가구의 영양 관리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외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1대1 일촌을 맺은 대상자에게 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찾아가 식품을 전달했다.

정원용 외서면장은 "식생활 개선에 도움을 주는 지사협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천시 경북 지역사회보장협 컨퍼런스 열려

시군 협의체간 경험·사례 공유 유공자 25명 도지사 표창 수여

민·관협력의 중심체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2024 경북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를 지난 31일 김천 탑웨딩에서 개최했다.

경상북도와 김천시가 주최하고 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경상북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복지혁신으로 성장하는 경북이라는 슬로건으로 22개 시군 협의체 위원 300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유공자 25명에 대한 도지사 표창수여와 함께 △임태영 경일대학교 교수의 사회적 고립예방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과 전략 주제강연에 이어 △김철원 TBC 아나운서의 고립된 이웃을 위한 손길힐링 강연으로 순서로 이어지며 현대사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복지문제에 대해 복지공동체이식의 중요성을 되짚어 보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경상북도 황영호 복지건강국장은 "오늘 이 자리는 시군 협의체간의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대한민국 복지시스템을 선도하는 경북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역사와 전통의 숨결이 살아 있고 문화·관광 인프라가 잘 조성된 김천시에서 행복한 기억을 많이 담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성군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선정

총 3개소 사업량 109ha 확보 사업 대상지구 수원 확보 노력

의성군은 2025년도 국비 공모사업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에 군 사업 예정지 총 3개소 109ha가 모두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선정지구는 의성군 금성면 소재지 2개소 초전지구(25ha)·하지구(45ha)와 안평면 소재지에 1개소 과산지구(39ha) 총 3개소로 사업비 51억원, 사업량 109ha를 확보함으로써 과실전문생산 거점지구 육성 및 만성적인 가뭄 피해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는 2026년까지 360ha가 조성됨으로써 복숭아, 자두 전체 재배면적의 약 20% 정도 용수 확보가 되는 큰 성과이다. 해당 사업은 2025년부터 2년차 사업으로, 1년차(착수기간)에 기본조사·설계과정을 거쳐 2년차(공사기간)에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하여 용수원 개발, 용수 이용시설(저수조, 송급수관, 경작로) 확충 등을 통하여 사업 대상지구 수원 확보에 힘쓸 예정이다.

'16~'23년 기초성지구 7개 지구(251.4ha) 주민 만족도 조사 및 과수발전협의회 등을 통하여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의 실효성을 집중 홍보하여 신규 대상지 발굴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과실전문생산단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기존 단지의 관리를 통해 과수농가의 수원 확보와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상주시, 새로운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나선다

품목별 농업인 단체 제품 개발 농산물가공발전연구회 개강식

상주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31일 상주시농산물가공발전연구회 회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산물가공제품 개발 및 식품원료 심화교육 개강식을 개최했다.

상주시농산물가공발전연구회는 상주시농산물 가공산업 발전을 위해 2013년 발족된 품목별 농업인 단체로 최신 트렌드에 맞춰 새로운 가공제품을 개발하여 시장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이번 교육이 기획되었으며 10월 3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총 3회에 걸쳐 교육이

추진될 예정이다. 올바른 식품원료 사용 및 고품질 가공제품 개발을 위해 식품원료연구소 민선대 대표를 초빙하여 새로운 가공제품 개발을 위한 식품원료의 특성, 원료의 배합비 설계, 공정도 작성, 시제품 제조 실습 등의 내용을 교육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은 "식품원료에 대한 전문지식을 배우고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및 상담을 통해 새로운 가공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서정현 미래농업과장은 "새로운 가공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for MG Mungyeong City featuring a large open book with a landscape scene. Text includes '문경 모든 여행을 담다' and '932종 동식물의 보금자리 환경부지정 습지보호지역 돌리네습지'.

### 안동 영주 예천 봉화 영양



영주2동, 독거 가구주거 개선

영주시 영주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31일 영주제일교회 제일복지재단과 연계하여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독거가구에 주거환경개선과 겨울 맞춤형 라미를 전달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작했다.

이날 제일복지재단에서 지원대 상 가구에 도배와 장판을 교체하고 단열을 보강하여 동절기를 걱정 없이 보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 더불어 영주2동 맞춤형복지팀에서는 사례관리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다양한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동절기에 필요한 등유 쿠폰을 지원하고 심리적 지원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심층적이고 세심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영양군 공직자 환경교육

영양군에서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29-31일까지 3일간 환경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공직자들이 지역 사회에서 환경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영양군 환경교육센터로 지정(23.11)된 멸종위기종복원센터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이라는 주제로 멸종위기 종의 현황, 생태계의 중요성, 그리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교육이 이루어졌다. 또한 멸종위기종복원센터 내부 시설을 견학하며 종들을 관찰하며 귀중한 경험을 쌓았다.



안동, 독립운동가 후손 초청

안동시는 제11회 21세기 인문 가치포럼 개최에 맞춰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국외에 거주하는 독립운동가 후손을 초청했다.

이번 초청은 독립유공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안동시가 독립운동의 성지로서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인문가치포럼에 참여해 인문가치를 탐색하고 사회적 대립과 갈등 해소 방안을 공유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초청된 안동 출신 독립운동가 후손 11명은 독립유공자 순영학의 후손들로 순영학은 길안면 천지시장에서 만세 시위를 주도하고 임시정부 군자금 모집 활동 등의 독립운동을 주도했다.



예움터마을



이육사문학관

## 안동, 열린관광지 조성... 2곳 최종 선정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 지정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등 목적 예움터마을 · 이육사문학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5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에 안동시 예움터마을, 이육사문학관을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 이로써 안동시는 2년 연속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은 관광객이 제약 없이 관광할 수 있도록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번 공모에는 전국 35개 지자체가 86개소에 이르는 관광지를 신청해 사업 추진 이래 역대 최대 신청률을 보였다.

안동시는 열린 관광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초부터 공모사업을 준비했으며, 높아진 공모의 문턱에도 불구하고 안동시는 확고한 사업 의지와 탄탄한 사업계획을 높이 평가받아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에서 경쟁력 있는 지자체로 인정을 받았다.

2016년 통합 개관한 '예움터마을'은 조선시대에 지어진 고택, 정자, 재사 등 7개 동의 전통 건축물들을 개선한 고풍적 고택숙박시설과 유서 깊은 안동지역 고택들을 재조명해 전통미에 서비스와 콘

텐츠,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더해 단장한 안동만의 독특한 전통문화복합 문화공간이다.

이육사문학관은 2004년 이육사 탄신 100주년을 맞아 안동시에서 육사의 고향인 경북 안동시도산면 원천리에 설립했으며, 육사의 독립정신과 업적을 알리고 있다.

한편 2024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으로 선정된 월영교, 선성현문화단지 일원은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5 선정된 예움터 마을, 이육사문학관은 내년 국비 5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0억 원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

예움터 마을에는 △보행로 개선 △무장애 특화

고급 객실 리모델링 등 인프라 개선과, △예움터 마을 황토길 맨발체험 프로그램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이육사 문학관에서는 △장애인 주차장 정비 △무장애 특화 객실 리모델링 등 시설 개선과, △청포도사생대회와 연계한 문학 읽어주기 해설 프로그램 △어울림 문화예술학교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관광거점도시 안동의 숨겨진 매력을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며 "앞으로 안동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열린관광지로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송명주 기자

### 봉화 우수자원봉사자 워크숍

(사)봉화군종합자원봉사센터는 우수자원봉사자 40명과 함께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1박 2일간 일정으로 강원도 일원에서 '2024년 봉화군 우수자원봉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평소 지역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며 자긍심과 사명감을 고취하고 네트워크를 통한 관계성 증진과 유대 강화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워크숍은 재난대비 자원봉사자 교육과 나눔에 대한 특강도 같이 진행됐다.

김병남 이사장은 "봉화군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봉사하시는 분들이 앞으로도 신명나게 봉사할 수 있도록 이번 워크숍과 같은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 영양군 특별교통수단 운행시간 확대 실시

65세 이상 고령자 · 임산부 등 6대 중차 22시까지 시간 연장

영양군은 11월부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을 확대·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는 보행상 장애인·65세 이상 고령자·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운행하고 있다.

특별교통수단은 평소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휠체어 사용자 등 교통약자를 위해 리프트와 전동 회전시트를 장착한 특수승

합차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운행 범위는 관내 및 대구광역시 포함 경상북도 전역이다.

기존 특별교통수단 차량 4대로 8시부터 18시까지 운행하던 것을 11월 1일부터 6대로 증차하면서 운행시간도 8시부터 22시까지로 확대 운영하게 된다.

특별교통수단 이용하려면 보행상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6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움이 있다는 진단서를 구비하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영양군지회(054-683-0373)에 이용자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자세한 이용방법 등은 등록 신청 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영양군은 이용차량 및 운행시간 확대를 통해 늘어나는 이용자의 수요에 대응하고, 예약 등 이용 불편 민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영동 기자

### 예천교육지원청, 초·중학교대표 독서 퀴즈

식전 행사 당일 제공 책 독서 62명 참가... 두 명씩 팀 이뤄

예천교육지원청은 지난날 31일 관내 초·중학교 학교대표 62명이 참가하여 2024 예천교육지원청

독서 퀴즈 축제를 개최하였다.

이번 '독서 퀴즈 축제'는 지역 학생들의 독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독서 문화를 조성하고자 매년 예천군민장학회 후원으로 운영되는 독서교육 프로그램의 새로운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생각 나누기 즐거움 더하기'독서 퀴즈 축제는 단

순한 문제 맞추기에서 벗어나 친구들과의 협력과 도전으로 독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식전 행사로 참가 학생들이 당일 제공된 책을 혼자 읽기와 함께 읽기의 방법으로 읽었고, 본 행사인 독서 퀴즈는 두 명의 학생이 한 팀을 이루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하나의 정답을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또한 레크레이션과 경품 추첨을 통해 즐거운 축제의 분위기의 행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참가팀은 모든 문제를 풀 후 맞춘 문제 문항에 따라 '즐거움독서상', '열정독서상'을 수상하였으며, 최다득점 팀은 '독서퀴즈왕'으로 선정되었다.

예천교육지원청 이창희 교육장은 "미래 사회를 살아갈 여러분이 독서를 통해 기를 수 있는 힘의 중요성을 알고, 책을 즐겨 읽음으로써 인공지능의 하인이 아니라 주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송명주 기자

### 영주시 농업인단체, 농업인의 날 기념식

농업인 21명 표창장 수여 지역 농특산물 홍보 진행

영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는 1일 지역 농업인 등 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해 동안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노력한 지역 농업인의 헌신을 기리고, 격려하기 위해 '제29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성대히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예년과 달리, 1일부터 3일까지 서천 문정동에서 열리는 '2024 영주장날 농특산물 대축제'와 함께하고자 축제장 주무대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식은 축제 개장식과 연계하여, 다양한 식전행사와 영주 농업 발전에 이바지한 자랑스러운 농업인 21명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 지역 농특산물 홍보 퍼포먼스로 진행했다.

또한, 농단협에서는 대축제 기간 중 축제장 방

문객들에게 우수한 품질의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하고자, 농산물 전시 및 시식 행사 그리고 가족 단위 방문객과 모든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농업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김보국 농단협 회장은 "농업인들의 열정과 노력을 다스림 되새기는 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농특산물 대축제장에 개최함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축제장에 많은 분들이 방문해 지역 농업인들이 직접 재배한 건강한 먹거리를 많이들 구입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기후변화와 농산물가격 하락 등 어려운 농업환경 속에서도 농업인들의 땀과 노력으로 우수한 지역 농산물을 생산해 주신데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되어, '미래지향 부자농촌'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자"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전상기 기자

### 예천군농기센터 '맛플리:예' 가공상품 선보여

40초큐브된장 · 마덕마늘누룽지 백태 활용 단백질쉐이크 연구

예천군농업기술센터는 1일부터 3일까지 개최되는 2024 예천농산물축제 행사장에서 농산물 가공기술지원센터를 이용해 생산된 맛플리:예 가공상품 23종과 시제품 7종을 선보였다.

제품은 예천농산물가공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부스에서 판매되며, 40초큐브된장, 마덕마늘누룽지, 서리태가루, 쌀과자, 레드비트분말, 복숭아 호두잼, 사과정과 등 23품목으로 축제장에서는 온·오프라인보다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했다. 행사장에서는 기술 개발 중인 다양한 가공제품을 시식할 수 있었고, 특히 예천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백태를 활용한 단백질쉐이크는 건강에 관심이 높은 소비세향에 맞춰 개발 중인 제품으로 기대를 모았다.



또한,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전달하며 농산물 축제를 홍보하고 상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전문 쇼호스트와 함께 하는 판매자들의 라이브방송도 진행됐다.

정정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직원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조합원들의 열성으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맛플리:예 공동브랜드가 예천에서 생산된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 가공상품으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명주 기자

대한민국 노후날씨

언제나 항상 맑음



노인장기요양  
 당신의 노후행복,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책임집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의 곁에 있어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